

사설

# 다전공·융합전공, 기반부터 다지자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학생이 전공을 넘어 다양한 학문에 발을 들이고 있다. 흔히 ‘취업 잘되는 학과’로 불리는 경영학과 등으로의 다전공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스펙’으로 불린다. 컴퓨터공학과 등 신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의 경우에도 관련 일자리 수요가 늘면서 이들 학과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학교도 적극적으로 다전공제도를 지원하고 융합전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융합전공은 특정 분야에 대한 복합적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융합전공제도를 본격 시행해 현재 9개의 융합전공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과 간 융합전공을 넘어 학교 간 융합전공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학기부터 운영되는 ‘가상공유대학’은 건국대 등 타 학교와 커리큘럼을 공유해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학교 차원에서 학생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기존 전공의 틀을 허물고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진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허약하다는 점이다.

디지털콘텐츠학과는 본전공생도 전공 수업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정된 정원에 비해 많은 다전공자 및 융합전공자의 수요가 몰리면서 본전공생을 포함한 수강 희망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로스쿨 열풍으로 법 관련 과목들은 매년 수강 경쟁이 벌어진다. 경영학과와 타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은 융합전공뿐 아니라 다전공 지원을 위한 선수강 수요도 겹쳐 본전공생도 전

공필수 과목을 듣지 못하기도 한다. 예산 등의 문제로 강의 확충에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한 없는 다전공과 융합전공은 고질적인 수강신청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본전공생과 다전공생이 느끼는 교육의 질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전공·융합전공과 같은 ‘응용’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다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융합전공이 유의미하기 위해선 그것의 뿌리인 본전공제도가 견고해야만 한다. 본전공제도의 고질적인 강의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융복

합전공 제도를 확장하는 것은 상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본전공 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 상황에서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만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각 학과의 예산과 교수 T/O를 입학정원이 아닌 다전공자를 포함한 실제 등록 정원에 따라 배분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인기 학과가 다전공 선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 더욱 많은 학생이 타 전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대의 사례처럼 우리학교도 신기술과 융복합 등 다양한 전공 도입에 앞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본질이다. 더 이상 무의미한 백화점식 전공 개설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학본부의 고민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세시봉

# 각자의 속도



강나운 기자  
nadori814@khu.ac.kr

최근 재출시된 캐릭터 빵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의 수요가 적어 단종됐던 과거와 달리, 재출시 일주일 만에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유아용 애니메이션 속 한 서브 캐릭터가 성인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며 주요 캐릭터로 거듭나기도 했다. 몇몇 아이돌 그룹 역시 발매일이 한참 지난 곡이 음원 순위에 올라 대세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역주행’이라고 부른다.

‘역주행’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유행이 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인다. 역주행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들은 사람들에게 뒤늦게 인정받으며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들을 ‘역주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역주행’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차원에서 다른 차량이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종목에 출전한 슬로베니아 선수는 출산 후에 복귀해 30대의 나이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정해진 나이와 속도가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과연 이들이 달려온 길이 역주행이라고, 반대 방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서에만 초점을 맞춰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역주행’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돋보였을지도 모른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정주행’으로 달려온 이들을 ‘역주행’이라 부르며 다른 부류로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제한 시간이 있는 듯이 자신을 재촉하는 경향이 있다. 한눈을 팔지 않는 토끼가 된다면 결승선에 일찍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부여한 토끼 탈을 쓴 채 서두르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신만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부담감은 내려놓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에 집중할 시점이다. 토끼 탈은 이만 벗어내고, 모두 각자의 ‘정주행’을 즐기길 바란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생협

# 협동과 상생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서울캠퍼스 내에 식당, 서점, 카페, 그리고 매점 운영으로 학생 생활 속에 뿌리내려온 경희대학교생활협동조합(생협)이 2003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안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익을 통해 장학금을 내놓는 등 생협은 상생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생협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수익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 등의 자구 노력을 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생협은 학교에서 설 자리

를 잃을 수밖에 없다. 생협이 그동안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환원하며 복지사업을 확대해온 점,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교육의 장도 제공해왔음을 생각해보면 생협의 위기 극복엔 구성원의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고 대면 강의가 전면 재개된다면 현재의 위기가 사그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생협이 예전의 체력을 회복하기까지는 구성원과 학교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학교 편의시설 전반의 운영에서 생협이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우리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생협에 대해서도 한시적이나마 지원을 고려해 볼만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타 대학에서도 생협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 책임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생협이 설립 이후 상생의 가치를 지켜온 만큼 이제는 구성원과 대학이 상생의 화답을 해줄 때가 아닐까.



만평 관심의 방향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김경민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